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이은숙¹ · 봉은주²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¹,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²

Impact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s' Problem Drinking on Problem Drinking of their University Student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Lee, Eun Sook¹ · Bong, Eun Ju²

¹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²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Goks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impact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 problem drinking on problem dr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 children of these par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250 university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in Gwangju city, Jeollanam-do, Jeollabuk-do, and Gyeongsang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March 31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It was foun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problem drinking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Also, it was foun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Conclusion:**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experiential avoidance,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 problem drinking, in order to prevent problem dr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Parent, Alcohol drinking, Trauma, Experiential avoidance, University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 외상경험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험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모욕, 지속되는 폭력, 성적학대 등 개인

에게 강한 공포감, 두려움 및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경험을 의미한다[1]. 아동기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과 같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동기 외상경험은 발달과정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아동기 외상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낮아

주요어: 부모, 음주, 외상, 경험회피,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Bong, Eun Ju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113 Daehang-ro, Okgwamyeon, Gokseong 516-911, Korea.

Tel: +82-61-360-5328, Fax: +82-61-360-5331, E-mail: b-e-j@hanmail.net

- 2015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2015.

Received: Aug 5, 2015 | Revised: Sep 23, 2015 | Accepted: Sep 2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노출되며, 흡연이나 음주, 약물사용과 같은 물질남용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점진적으로 중년기 이후에는 신체적 질병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증가한다[2]. 아동기 외상경험의 점진적이고 심각한 영향중의 하나는 성인으로 성장 후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14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고 사회적 음주로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처수단으로 음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3,4],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5-8]. 선행연구[5]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족내 알코올중독이나 약물남용,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가족 내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는 집단이 외상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자나 알코올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2~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별도로 부모의 문제음주를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보고하였다[9]. 부모의 음주문제가 있는 성인자녀들(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은 부모의 음주문제가 없는 성인자녀들(non-ACOA)에 비해 심각하게 폭음을 하며,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며,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10].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5,11,12]. 또한 부모가 알코올남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2~13배 더 많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알코올남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외상을 경험한다[12]. 즉 알코올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나 가정폭력,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을 노출되어 심각한 외상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문제음주와 아동기외상경험이 관련성이 있지만,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보고하였다[5-7,11]. 즉 부모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외상경험과는 별도로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훨씬 증가시켜 세대 간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5].

이러한 아동기 외상경험이나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경험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한다[13]. 알코올중독자들은 이러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같은 원치 않는 사적 사건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과

도하게 사용함으로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13]. 국내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Kim[8]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는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며, 외상경험과 알코올중독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14]에서는 문제음주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였고, 경험회피는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수로, 심리적 불편감과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경험회피는 고통스러운 상황, 감정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알코올사용 뿐 아니라 흡연, 폭식, 약물남용, 성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핵심기제로 강조되면서[15] 관련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결국, 경험회피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인지적 대처방식으로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장기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피하거나 통제하고자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증가시키고,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문제음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음주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학생 문제음주의 발생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 문제음주,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아동기 외상경험 및 부모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들

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남, 전북, 경남 소재의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임의 편의표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 =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1-\beta$) .80, 예측변수 3개를 G^* Pow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필요한 최소 인원은 7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음주문제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음주문제가 있는 성인자녀들(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의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최소 인원을 77명으로 하고, ACOA는 non-ACOA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10]를 근거로, 부모의 음주문제가 없는 성인자녀들(non-ACOA)의 표본수를 77명의 2배에 해당하는 154명으로 하여 총 231명을 최소 인원으로 하고, 탈락을 10~20%를 고려하여 총 2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 중 불성실한 설문 27부를 제외하고 총 25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6]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항의 도구[17]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랬다(4점), 항상 그랬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은 25~125점의 범위로 제시되며 25~31점은 외상경험이 없거나 최소의 경험이 있는 경우이며, 41~51점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56~68점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73~125점은 중증에서 극심한 수준의 외상경험을 한 것으로 분류된다[16]. 선행연구[18]에서는 Bernstein과 Fink[16]가 제시한 외상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총점 41점 이상을 경도 이상의 외상이 있는 외상군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총점 41점 이상을 외상군으로 분류하였다. Bernstein과 Fink[16]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85~.8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Jones[19]가 개발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를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로 타당화시킨 도구[20]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가정불화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음주를 조절하려는 시도, 알코올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폭력에 노출, 부모를 알코올중독자로 지각하는 경향,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은 소망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30개 문항에 대하여 1문항에 '예'로 응답한 경우 1점으로 채점한다. 본 연구에서는 Jones[19]가 제시하고 국내 연구[20]에서 재사용한 기준을 따라 CAST-K 총점 6점 이상을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ACOA로 규정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3) 경험회피 척도(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 AAQ-II)

경험회피 척도(AAQ-II)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ACT 이론에 기초하여 Hayes 등[21]에 의해 구성된 AAQ-I을 Bond 등[22]이 단일차원의 척도로 개정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Lee[2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Hayes 등[21]에 의하면 AAQ-II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는 기존의 AAQ와 높은 상관관을 나타내면서 기존 척도보다 더 간결하여 심리측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구와 치료 장면에서 AAQ-II를 쓰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하였다. AAQ-II는 7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1, 6, 10은 역환산하여 총 점수 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ond 등[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국내에서 Lee[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4) 한국형 문제음주척도(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는 1989년 WHO의 주관하에 세계 6개국의 조사를 거쳐 개발된 음주척도로서 음주의 빈도와 양, 의존증상, 문제음주 세 가지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기존의 알코올사용장애와 위험한 음주 모두를 선별하는 장점이 있고, 소요시간이 짧으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도 검사를 마친바 있는 AUDIT-K (Korea version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도구[24]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 관련 문제의 3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8문항은 5점 척도(0~4점), 2문항은 3점 척도(0점, 2점, 4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40점이다. 문제음주 정도는 0점~7점이면 정상, 8점~19점이면 상습적 과음자로 주의가 필요, 20점~24점은 잠재적 알코올중독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요구되고, 2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자로 구분한다. 선행연구[24]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IRB NO: 2014-07-020)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보조원에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하여, 수업 종료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 연구참여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총 77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도의 차이는 t-test, 부모음주 문제,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5]의 지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1.8%, 여학생이 48.2%로 남학생의 비율이 많았고, 평균연령은 20.3 ± 2.09 세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39.9%, 2학년 25.4%, 3학년 22.6%, 4학년이 12.1%의 순으로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37.3%, 없는 경우가 62.7%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81.9%가 '중'으로 답했고, 2.4%가 '상', 15.7%가 '하'라고 인식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pm SD
Gender	Male	129 (51.8)
	Female	120 (48.2)
Age (year)		20.3 \pm 2.09
Grade	1st	99 (39.9)
	2nd	63 (25.4)
	3th	56 (22.6)
	4th	30 (12.1)
Religion	Have	93 (37.3)
	None	156 (62.7)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6 (2.4)
	Middle	204 (81.9)
	Low	39 (15.7)

2.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의 문제음주,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도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는 40점 이하인 비외상집단이 78.8%, 41점 이상의 외상집단이 21.2%를 나타냈으며, 평균점수는 35.8 ± 9.48 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는 5점 이하인 정상집단(non ACOA)이 68.0%, 6점 이상의 부모

가 문제음주자인 ACOA집단이 32.0%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4.9 ± 6.18 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경험회피 정도는 평균점수는 32.2 ± 8.11 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 정도는 7점 이하인 정상음주자가 33.7%, 8~19점의 상습적인 과음주를 하는 문제음주자는 55.4%, 20점 이상의 잠재적 알코올중독자는 10.8%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10.63 ± 6.42 로 나타났다 (Table 2).

3.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의 문제음주, 경험회피와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외상경험($r=.21, p=.001$), 부모의 문제음주($r=.32, p<.001$), 경험회피($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모의 문제음주($r=.37,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경험회피는 부모의 문제음주($r=.37, p<.001$) 및 아동기 외상경험($r=.49, p<.001$)과 강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5]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1~0.8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22~1.41으로 10 미만이었으며, 상태지수는 1.0~11.19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8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Baron과 Kenny[25]의 매개효과 검증은 3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험회피를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50, p<.001$), 2단계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대학생자녀의 문제음주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21, p<.001$), 3단계에서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를 투입한 결과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대한 경험회피의 영향력은 유의하면서($\beta=.24, p=.001$)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10, p=.173$), Sobel test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13, p=.001$).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완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2. The Degree of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Variables	Categories	Score	n (%)	Range	M±SD
Childhood trauma	Non trauma group	25~40	197 (78.8)	25~71	35.8 ± 9.48
	Trauma group	≥ 41	53 (21.2)		
Parent problem drinking (CAST-K)	Non ACOA	0~5	170 (68.0)	0~26	4.9 ± 6.18
	ACOA	≥ 6	80 (32.0)		
Experiential avoidance				16~64	32.2 ± 8.11
Problem drinking (AUDIT-K)	Normal	0~7	84 (33.7)	0~38	10.6 ± 6.42
	Problem drinker	8~19	138 (55.4)		
	Potential alcoholics	≥ 20	27 (10.8)		

5. 부모 문제음주와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첫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부모의 문제음주와 경험회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문제음주는 경험회피를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beta=.37, p<.001$), 2단계에서 부모의 문제음주는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를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32,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부모의 문제음주와 경험회피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문제음주($\beta=.24, p<.001$)와 경험회피($\beta=.19, p=.003$) 모두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문제음

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Sobel test로도 입증되었다($Z=2.71, p=.007$). 따라서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는 평균 35.80 \pm 9.48점(점수범위 25~125)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41점 이상의 정도 이상의 외상경험이 있는 외상집단이 21.2%를 나타내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18]의 연구의 13.4%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Variables	Parent problem drinking r (p)	Childhood trauma r (p)	Experiential avoidance r (p)	Problem drinking r (p)
Childhood trauma	.37 (< .001)	1		
Experiential avoidance	.37 (< .001)	.49 (< .001)	1	
Problem drinking	.32 (< .001)	.21 (.001)	.28 (< .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Predictors	β	t (p)	Adj. R ²	F (p)	Sobel test	
					Z	p
1. CT→EA	.50	9.02 (< .001)	.25	81.29 (< .001)		
2. CT→PD	.21	3.43 (.001)	.04	11.79 (.001)		
3. Step 1 (EA→PD)	.24	3.36 (.001)				
Step 2 (CT→PD)	.10	1.37 (.173)	.08	11.80 (< .001)	3.13	.001

CT=Childhood trauma, EA=Experiential avoidance, PD=Problem drinking.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Parent Problem Drinking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Predictors	β	t (p)	Adj. R ²	F (p)	Sobel test	
					Z	p
1. PPD→EA	.37	6.28 (< .001)	.13	39.44 (< .001)		
2. PPD→PD	.32	5.21 (< .001)	.10	27.16 (< .001)		
3. Step 1 (EA→PD)	.19	3.03 (.003)				
Step 2 (PPD→PD)	.24	3.80 (< .001)	.12	18.61 (< .001)	2.71	.007

PPD=Parent problem drinking, EA=Experiential avoidance, PD=Problem drinking.

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 자녀는 31.2%로 Yoon[10]의 연구에서 32.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수준은 AUDIT를 기준으로 8점 이상의 문제음주자가 55.4%이며, 20점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잠재적인 알코올중독자는 10.8%로 나타났다. 이는 20~30%의 대학생들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문제음주자로, 10명 중 1명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은 성인초기로 이동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문제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발생경로를 밝히고 그에 따른 중재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험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경험회피와 부모의 문제음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경험회피와 아동기 외상경험은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험회피, 대학생 문제음주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일으키는 발생경로에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문제음주와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의 경우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기 외상경험 자체가 문제음주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므로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나 부모의 이혼이나 폭력,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외상경험은 부모의 문제음주와는 독립적으로 청소년 음주와 대학생이나 성인기 이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7]를 지지한 결과이며,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를 완전 매개하여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Kim[8]의 연구

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중재가 매우 중요함을 제시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는 대학생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 전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8,9]와 일치한 결과이며, 경험회피가 대학생 문제음주가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힌 Levin 등[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 대학생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감정, 사고를 피하고자 경험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의 경우에 문제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문제음주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모의 문제음주를 중재하기 위한 가족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경험회피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결국,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에는 경험회피의 사용정도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험회피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Hayes 등[13]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는 대부분 경험회피자이며,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경험회피는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기능적인 차원으로써,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이 음주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 성중독, 폭식, 흡연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13,15,26]. Hayes 등[13]은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중재방안으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모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acceptance)하고, 알아차리고(mindfulness), 탈융합(defusion)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행동변화를 지속시켜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수용전념치료(ACT)를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뿐 아니라 불안장애, 섭식장애, 강박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인 중재로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음주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기제인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 학생생활상담소나 지역사회 의 중독 관리센터에서는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경로인 경험회피와 같은 요인들을 중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내 관대한 음주문화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방법을 학습하도록 조장하므로 대학내 음주규정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함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와 경험회피 정도가 사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가 문제음주자이거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선별하여 수용전념치료와 같은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간호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에 기여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핵심기제인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성인기 이후에 알코올중독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연구측면에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 문제음주가 대학생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추가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교육 및 정책의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내 정책이나 교육시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학 내 단순한 일회성의 교육이나 홍보에서 벗어나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남, 전북, 경남에 소재해 있는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부모의 문제음주를 부모에게 직접조사하지 않았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 정도를 현 시점에서 조사하였으므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였고 발달되었는가를 추적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변수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실제로 일으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대학생에 걸쳐 관련변수를 측정하여 추후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힐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음주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이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와 경험회피와의 관계를 밝히고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험회피와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경험회피 전략의 사용 정도가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함께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Kwon JS, translato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 Mersky JP, Topitzes J, Reynold AJ. Impacts of adverse child-

- hood experiences on heal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in early adulthood: a cohort study of an urban, minority sample in the U.S. *Child Abuse Negl.* 2013;37:917-25.
<http://dx.doi.org/10.1016/j.chiabu.2013.07.011>
3. Dube SR, Miller JW, Brown DW, Gilles WH, Felitti VJ, & Dong M.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association with ever using alcohol and initiating alcohol use during adolescence. *J Adolesc Health.* 2006;38:444.e1-444.e10.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05.06.006>
4. Rothman EF, Edwards EM, Heeren T, Hingson RW.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dict earlier age of drinking onset: results from a representative US sample of current or former drinkers. *Pediatrics.* 2008;122:e298-e304.
<http://dx.doi.org/10.1542/peds.2007-3412>
5. Dube SR, Anda RF, Felitti VJ, Edwards VJ, Croft JB.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ersonal alcohol abuse as an adult. *Addict Behav.* 2002;27:713-25.
6. Thompson RG, Lizardi D, Keyes KM, Hansin DS. Childhood or adolescent parental divorce/separation, parental history of alcohol problems, and offspring lifetime alcohol dependence. *Drug Alcohol Depend.* 2008;98:264-9.
<http://dx.doi.org/10.1016/j.drugalcdep.2008.06.011>
7. Xiao Q, Dong MX, Yao J, Li WX, & Ye DQ. Parental alcoholism,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later risk of personal alcohol abuse among chinese medical students. *Biomed Environ Sci.* 2008;21:411-9.
8. Kim YJ.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and Alcohol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master's thesis]. [Suwon]: Aju University; 2013. 33 p.
9. LaBrie JW, Migliuri S, Kenny SR, Lac A. Family history of alcohol abuse associated with problemat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 Behav.* 2010;35:721-5.
<http://dx.doi.org/10.1016/j.addbeh.2010.03.009>
10. Yoon MS.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ACOA trait among university students of alcoholic family. *J Korean Alcohol Sci.* 2006;7(2):29-44.
11. Anda RF, Whitfield CL, Felitti VJ, Chapman D, Edwards VJ, Dube SR, Williamson D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lcoholic parents, and later risk of alcoholism and depression. *Psychiatr Serv.* 2002;53(8):1001-9.
12. Dube SR, Anda RF, Felitti VJ, Croft JB, Edwards VJ, Gilles WH. Growing up with parental alcohol abuse: exposure to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Negl.* 2001;25:1627-40.
13. Hayes SC, Luoma JB, Bond FW, Masuda A, Lillisa J.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 Res Ther.* 2006;44:1-25.
<http://dx.doi.org/10.1016/j.brat.2005.06.006>
14. Levin ME, Lillis J, Seeley J, Hayes SC, Pistorello J, Biglan A.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voidance, alcohol use disorder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 Am Coll Health.* 2012;60(6):443-8.
15. Kingston J, Clarke S, Remington B. Experiential avoidance and problem behavior: a mediational analysis. *Behav Modif.* 2010;34(2):145-63.
16. Bernstein DP, Fink L.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Psychological Corporation; 1998.
17. Yu JH, Park JS, Park DH, Ryu SH, Ha JH. Validation of the 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the practical use in counsel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Korean J Health Psychol.* 2009;14(3):563-78.
18. Kim JH, Kim JE, Won SH, Rim HD, Kim BS, Lee SJ. The role of childhood trauma on early maladaptive schema domai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334-41.
19. Jones JW.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nd test manual. Chicago: Camelot Unlimited; 1983.
20. Kim MR, Chang HI, Kim KB.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5;34:1182-92.
21. Hayes SC, Strosahl K, Wilson KG, Bissett RT, Pistorello J, Toarmino D, Polusny MA, et al.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Psychol Rec.* 2004;54:553-78.
22. Bond FW, Hayes SC, Baer RA, Carpenter KM, Guenole N, Orcutt HK, et al.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 Ther.* 2011;42:676-88.
<http://dx.doi.org/10.1016/j.beth.2011.03.007>
23. Lee SY. The mediation effect of process variables for anxiety in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10. 34 p.
24. Lee BO, Lee CH, Lee PG, Choi MJ, Namkoong K.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K)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 Korean Acad Addict Psychiatr.* 2000;4(2):83-92.
25.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1986; 51:1173-82.
26. Chawla N, Ostafin B. Experiential avoidance a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psychopathology: an empirical review. *J Clin Psychol.* 2007;63(9):871-90.
<http://dx.doi.org/10.1002/jclp.20400>